



흥겨운 무대는 어르신들도 어깨춤을 절로 추며 자리를 박치고 일어나게 했다. 자연스럽게 무대 아래에 어르신들의 작은 무대가 만들어졌다.

# 목포 어르신들 경사났네

설날을 일주일 앞둔 2월 3일, 남도 땅 목포에서 경로잔치가 열렸다.

흔한 동네잔치가 아니라 목포 시내 26개 동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초대형 잔치였다.

목포 KBS 체육관에서 열린 이날 잔치에는 무려 2000여명의 어르신들이 모였다. 자원봉사 버스 10여대가 목포시내를 오가며 노인들을 모셨다.

대형 잔치마당을 차려놓고 노인들을 초청한 이는 보현정 사주지장 스님(법명종 중징)이다.

“이제는 목포 시민에게 회향하고 싶다.”는 뜻이 경로잔치로 실현됐다.

식전행사에서 정각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닭의 해로 금 닭에 비유되는 좋은 해이다”며 “닭처럼 활기차고 건강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했다.

배움터 목포시장 권한대행도 “효는 백가지 행실의 근본으로 불교계에서 즐겨온 자리를 마련해 주어 감사하다며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연예인 공연이 시작되면서 체육관은 서서히 달아올랐다.

보현정사 가흥빈가 합창단의 음성공양을 시작으로 승무, 북춤, 대금산조, 판소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음악이 펼쳐

## 보현정사, 3일 경로잔치 열어 2천여명 참석 흥겨운 무대

졌다.

이어 2부에서 국내 정상급 연예인들이 대거 등장했다. 방송국 ‘노래자랑’의 대명사격인 송해씨가 사회를 맡았다.

인기 가수이자 포교사로 알려진 남강수, 송준희 법사의 무대에 이어 목포가 낳은 가요계 거목 남진씨가 등장하자 체육관은 떠나갈 듯 했다. ‘미워도 다시 한번’ ‘가슴 아프게’ ‘님과 함께’ 등 국

민가요가 되어버린 남진 씨의 애창곡이 끊이지 않았다.

목포 대성동 복지회관에서 동료들과 함께 온 강동심(76) 할머니는 “가수들이 직접 나오는 잔치는 처음이다”며 “불교는 믿지 않지만 스님이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어 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옹해동에서 사는 김성길(80) 할아버지도 “말모단 노인들 위한 다면서 변변한 놀이하나 없던 차에 오늘은 좋은 날이었다”며 “이런 공연이 자주 있기를 바란다”며 미소 지었다.

“부처님의 자비를 지역민에게 회향하겠다”고 강조하는 정각 스님은 지난 달 목포 시내에 무료노인 급식소를 개설한바 있다. 요즘은 복지법인 영산정각원 설립을 위해 분분서주하고 있다.

목포시가 들춰거린 ‘설맞이 어르신’을 위한 큰 잔치’는 이렇듯 더욱 큰 원을 세우며 회향했다.

글: 사친/목포=이준경 기자

## 대불련 총동문화 정기총회·워크숍

대불련 총동문화(회장 정기태)가 2월 19-20일 대전 경호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동문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대불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대불련 총동문화는 19일 △대불련 동문 윤리강령 제정(윤세원 부회장) △대불련인의 사회참여와 자비실천 방안(태고종 교무부장 법현 스님) △대불련 활성화와 회관 건립방안(정용학 재정부위원장) 등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또 20일 총회에서는 새 회장 및 임원단 선출, 2004년도 모범 지부 및 지회 표창, 200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한다. 모범 지부 및 지회로는 부산 지부, 중앙대 지회, 전남대 지회, 부경대 지회 등이 선정됐다. 총회 후에는 계룡산 등반 및 태극권 특강이 마련된다.

강지연 기자

## 새만금 법정 공방 장기화 정부·환경단체 각각 항소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법정 공방이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2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새로운 재판부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새만금 사업 방조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어 장기간의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철주 기자

## 교법사 신분 ‘교사’에서 ‘법사’로

### 광동학원, 정관 개정...교계 최초로 공식 보장

교사자격증이 있는 불교대학 출신자로 종립학교에서 종교수업을 담당하던 ‘교법사’의 신분이 교사에서 ‘법사’로 보장된다.

광동학원(이사장 일면)은 지난해 12월 27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법사직을 두고, 자격을 갖춘 법사를 둔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법인 정관을 개정했다. 이로써 광동학원에 재직하는 교법사는 ‘법사’로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지금까지 교법사의 지위는 일반교사와 동일한 선상에서 처리되어 왔다. 교사이기

도 하고 법사이기도 한 두 가지 신분을 유지한 교법사들은 교사로 일선 수업에서 도덕 윤리 교학수업 등을 진행하면서 법사로 청소년 불교 교재 개발, 법회 진행 및 포교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법적으로 교사의 신분이다 보니 법사로서의 포교활동에 제약이 받았던 것이 사실. 교법사단에서는 교법사의 신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해왔다.

종립학교에서 학교법인 정관에 ‘교법사’의 지위 규정 조항을 둔 것은 광동학원이 처음이어서 다른 종립학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강지연 기자

## 선남선녀 맺어주기 법회 연다

### 육천 대성사 만남 주선

‘절에서 배우자를 찾는다.’

사찰을 법문 듣고 기도 하는 수행처로만 생각한다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다. 사찰은 이미 문화의 장이 됐다. 여기에 충북 육천 대성사는 한 가지를 더 보탤다. 다음 달 ‘선남선녀 결혼 맺어주기’.

대성사 주지 해월 스님은 최근 들어 신도들과 지역민들로부터 본인 또는 자식들의 ‘짝’을 찾아달라는 요청이 잦아져야 아예 발 벗고 나섰다.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인터넷을 통해 구혼자의 신상과 이력을 공개하고, 이를 본 사람들이 만나에 응하도록 하는 방식. 이를 위해 대성사는 최근 육

천신문 홈페이지에 이 코너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남이 주선되면 당사자들은 매주 일요일 오전 ‘선남선녀 특별법회’에 참석해 상견례를 하게 된다. 이 법회에는 매주 일요일 오전 대성사에서 법회를 갖는 지역 전의경과 군인들도 함께 하도록 해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에게 맞는 ‘짝’을 찾도록 할 생각이다. 벌써 6명이 신청을 했을 정도로 관심도는 상한가. 이 특별법회는 이달 중순경 시작돼 매주 일요일마다 열리게 된다.

해월 스님은 “대중에게 다가가는 포교를 위해서는 대중의 요구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043)732-5560

한명우 기자

## 도선사·감로사, 지진해일 희생영가 49재

서울 도선사와 부산 감로사가 2월 11일과 12일 남아시아 지진해일 희생자들을 위한 49재를 봉행했다.

도선사주지 혜자는 12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도선사 회주 해성 스님 등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

국찰회원에서 49재를 봉행하고 지진해일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감로사주지 혜충)는 하루 앞당겨 11일 삼천불전에서 2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지진해일 희생 영가를 위한 49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천미희·강유신 기자



2월 12일 서울 도선사에서 열린 지진해일 희생자 49재 법회에서 법문을 하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 이 시장 ‘서울시 봉헌’ 발인 108 소송인단 항고

이명박 서울시장의 ‘서울시 봉헌’ 발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108소송인단(대표 김재일)이 1심 기각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2월 3일 항고했다.

항고장에서 소송인단은 이명박 시장의 행위가 정교분리·종교평등·공무원법상 직무전념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서울시민의 행복추구권 및 명예 훼손 등이어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강지연 기자

## 인드라망 불교귀능학교

### 3월 15일부터 화·금요일

1998년부터 매년 27석 불교귀능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가 제16기 불교귀능학교를 개설한다.

3월 15일부터 매주 화, 금 저녁 7시에 진행되는 귀능학교는 ‘땅을 살리는 길, 생명을 살리는 길, 서로를 살리는 길’을 주제로 ‘왜, 아직도 귀능인가?’, ‘생명의 경제, 공생의 경제’, ‘친환경 농장 만들기’ 등 총 20강좌의 이론교육과 2차례의 실사시역공동체, 강원도 횡성 현장학습이 진행된다. (02)733-1884 유철주 기자

## 중앙신도회 동안구 수행논강

### 석종사서 19·20일 회향법회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가 지난 달 11월 23일 입재한 동안구 수행논강 <돈오입 돈요문론> 강설이 2월 19-20일 3개월 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회향한다.

충주 석종사에서 열리는 이번 회향식은 여주 신록사, 금부선원, 법흥사 적법보궁 등을 참배하고 논강을 총 정리하는 종합 수련회의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논강 총정리는 법인정사 선원장 설우 스님의 <돈오입도요문론> 강설 총의 및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된다. 석종사 금부선원장 혜국 스님의 동안구 수행논강 회향법문은 20일 새벽 6시 40분에 열린다. (02)733-7277 강지연 기자

## 사회복지법인 각원복지재단

### 불우이웃에 생필품 2차 전달

사회복지법인 각원복지재단(이사장 광도)은 2월 7-18일까지 쌀 10kg 27포대와 양말 등을 경남 마산신 진북면, 진전면, 진동면 일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달했다.

사회복지법인 각원복지재단 준비위원회를 거쳐 진북면 지역사회의 복지활동을 개척하며 진북면 복지패밀리협의회를 태동시킨 각원복지재단은 2004년 12월 1차 생계 지원에 이어 2차 전달식을 가진 것이다. 천미희 기자

# 제1회 「선우논강」 법석에 초대합니다

주제: 대념처경 大念處經으로 읽는 초기불교의 수행

청안청락 하십니까

바람직한 승가상 정립과 승풍진작을 위하여 탁마정진하는 선우도량에서는 ‘대념처경으로 읽는 초기불교의 수행’이란 주제로 논강의 법석을 펼칩니다.

**대념처경**은 초기불교수행법을 몸(身)·느낌(受)·마음(心)·법(法)의 네 가지 주제 하에 집대성한 경으로, 초기수행법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경입니다. 마음챙김으로 대표되는 초기불교 수행법은 이 경을 토대로 지금까지 전승되어오고 있으며, 윗빠사나 수행법은 모두 이 경을 토대로 하여 가르쳐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금번 선우논강에서는 대념처경을 초기불교연구원의 각목 스님이 집중 강의하고, 이어 대중들이 활발하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논강을 통하여 초기불교 수행의 원형을 명확하게 밝히고, 나아가 부처님 사상과 정신을 토대로 모든 수행법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인연을 삼고자 합니다. 두루 동참하시어 탁마와 정진의 아름다운 법석을 장엄하여 주십시오.

- 일 시: 불기 2549년 2월 26일 토요일 (음력 1월 18일) 오후 3시 ~ 10시
- 장 소: 지리산 실상사
- 대 상: 조계종 출가대중
- 지참물: 대가사, 동참금 3만원
- 문 의: (063)636-3031(실상사)

\*\* 교재 대념처경이 필요하신 스님은 010 - 3020 - 3698 (사무처장) 앞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선우도량 공동대표 철오·현각 합장

